



## ‘유쾌·상쾌·통쾌’ 김과장이 나타났다

KBS 2TV ‘김과장’ 내일 첫 방영

남궁민 “코믹연기로 새롭게 변신”

“사이다 한박스를 선사할게요.” 시청자의 가슴을 포근하게 데웠던 ‘오 마이 금비’가 퇴장한 자리에 유쾌하고 코믹한 오피스 드라마가 들어선다. 25일 밤 10시 첫선을 보이는 KBS 2TV 수목드라마 ‘김과장’(사진)은 돈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으로 만 주머니 차는 데 도가 튼 경리과장 김성룡이 더 큰 한탕을 위해 TQ그룹에 입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김성룡 과장은 그러나 TQ그룹에서 의도하지 않게 부정부정, 부조리와 싸우면서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는 데 앞장서게 된다.

제작진은 23일 “경리과를 배경으로 한 색다른 소재를 토대로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통쾌함과 격한 공감, 소소한 위로를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드라마 ‘굿닥터’로 대한민국에 깊은 울림을 안겼던 박재범 작가와 드라마 ‘정도전’, ‘폐이저티너’로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연출해 호평을 받았던 이재훈 PD가 문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재훈 PD는 “우리 드라마는 오피스 활극”이라며 “밥벌이를 위해 출근하고 야근하고 부대끼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오피스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웃고 울고 부대끼는 모습을 담는다”고 소개했다. 타이틀롤을 맡은 남궁민은 김과장이라는 예측불가 캐릭터로 변신을 감행한다. 남궁민이 연기할 김성룡은 비상한 두뇌와 돈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을 지닌 일명 ‘뽕땅’과 ‘해먹기’의 대가이자 현란한 언변과 근성을 소유했다. 특히 남궁민은 김성룡 역을 통해 지방 조폭들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국내 기업의 경리부과장으로 들어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과정을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통쾌함을 선사할 전망이다. 매 작품마다 다채로운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던 남궁민이 선보이게 될 경리부 김과장의 어떤 모습일지 주목되고 있다. 그는 “머리 염색을 했고, 제가 말이 빠른 편이 아닌데 이 드라마에서 말도 빠르게 했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며 “전작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출산 후 이 드라마를 통해 복귀하는 남상미는 학창 시절 스포츠볼 선수로 활약했던 TQ그룹 경리과 대리 윤하경 역을 맡았다. 당찬 근성과 승부욕, 단아한 외모까지 겸비한 명문대 회계과 출신 ‘경리부 에이스’에서 점차 조직에 순응하던 중 김과장을 만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인물. 지난 2014년 9월에 종영한 드라마 ‘조선총잡이’ 이후 2년여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하는 남상미가 그

러블 ‘커리어 우먼’ 윤하경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씩씩한 역할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연약하게 보는 경우가 많더라”며 “그래서 이렇게 씩씩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뽕보 공주’로 변신했던 정혜성은 TQ그룹 회계부 인턴사인 홍가을을 연기한다. 배일에 싸인 인물로, 매사 의욕은 넘치나 허당 기질이 다분한 ‘허당녀’다. 정혜성은 “홍가는 캐릭터를 통해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며 “발랄하고 당찬 매력에 있는 인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박영규, 이일화, 김원혜, 서정연, 황영희, 정석용 등이 막강 조연 군단으로 포진한다. 제작진은 “씩다 못해 고름이 터져 나와 말라붙어 버린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람들은 부정부패에 대한 감조차도 무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부정을 당연시 하는 썩어 빠진 관공(?)이 국가와 인간을 망치고 있음을 김과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고발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얘기를 원론적이고 딱딱한 스토리와 캐릭터로 보여주기 싫었다”며 “코미디를 통해 직설과 은유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풍자하고, ‘사이다’ 한 박스를 선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군 전역하고 돌아왔어요”

JYJ 김재중, 단독 콘서트 성황

“군 생활 무사히 마치고 전역한 민간인 김재중입니다. 전역 3주차여서 아직 군인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니다.” 작년 12월30일 제대한 그룹 JYJ의 김재중(31·사진)이 공백 1년 9개월 만에 무대에 올라 “전역 3주차에 공연하는 건 여러분 덕”이라며 박찬 표정을 지었다. 2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개최한 단독 콘서트 ‘2017 김재중 아시아 투어 인 서울-더 리버스 오브 제이’(The REBIRTH of J)에서다. 이번 공연은 8개 도시를 도는 아시아 투어의 시작 공연이다. 김재중은 이날 록과 발라드 등을 오가며 그간 선보인 솔로 앨범을 망라해 들려줬다. 록 발라드 ‘서랍’과 블루스풍의 ‘원망해요’를 부르며 감성적인 분위기로 이끌다가 도 빠른 템포의 록인 ‘웰컴 투 마이 와일드 월드’(Welcome To My Wild World)와 하드 록인 ‘굿럭’(Good Luck) 때는 볼가동이 치는 가운데 거친 로커로 변신했다. 그의 첫 미니앨범 곡 ‘마인’(Mine)을 부를 때는 열정적인 ‘매장’이 터져나왔다. 한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팬들을 향한 김재중의 친근함은 여전했다. 무대에서 상반신을 드러내며 의상을 갈아입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다, 즐겁다”고 연방 외쳤다.



팬들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손가락 하트를 날리며 “이런 것이 어색하고 창피했는데 어제 한번 해보니 ‘비글기’가 올라오는 것 같다”고 했다. 군대에서 불쌍간사춘기의 음악을 많이 들었다, 군에 있을 때 시트콤을 많이 봤는데 재미있는 역에 도전해보고 싶다 등의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다. 팬들 또한 이날 공연의 드레스코드대로 10년 전이나 후를 떠올린 복장을 하고 와 웃음을 쳤다. 안코르 때는 팬들이 일제히 ‘다시 함께 건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26일 생일을 맞는 김재중을 위한 생일 축하곡을 합창하기도 했다. 이날까지 이틀간의 공연에는 총 1만 관객이 모였다. /연합뉴스

## 아이유·장기하 3년만에 결별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4)와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장기하(35)가 교제 3년여 만에 결별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와 장기하의 소속사 두루두루amc는 “두 사람이 최근 연인으로서의 인연을 마무리했다”며 “각자 일에 매진하면서 소원해졌고 이달 들어 선후배로 남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동료 음악인으로 서로 응원할 것”이라며 “결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아이유·장기하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10 철어서 세계속으로(재)                 | 00 MBC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 20 광주MBC 뉴스투데이<br>50 MBC 아침드라마 <연애나 봄날>   | 30 KBC 모닝 730                                                    |
| 8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25 TV블로그 꿈지락<br>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
| 9  | 30 KBS 뉴스                                                                           |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br>40 여유만만 | 30 MBC 생활뉴스<br>45 기분 좋은 날                 | 10 좋은 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40 지구촌 뉴스                       |                                           | 10 SBS 뉴스<br>25 SBS 생활경제<br>40 KBC 생활뉴스                          |
| 11 | 00 생로병사의 비밀<br>신년기획 2부작 (재)<br>55 감성애니 하루                                           |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 00 월화드라마<br><불야성>(재)                      |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br>30 꾸러기 탐구생활                                |
| 12 | 00 KBS 뉴스 12                                                                        | 00 생생정보 스페셜                     | 00 MBC 정오뉴스<br>20 TV속의 TV                 | 00 SBS 12뉴스<br>30 KBC 12뉴스<br>50 TV블로그 꿈지락<br>55 세상발견 유레카 (715회) |
| 1  |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br>05 KBS네트워크특선<br>뮤직토크쇼 가요1번지<br>55 방학특집 청소년 공감 콘서트<br>온드림스쿨 (재) | 00 1대 100                       | 20 문화사색 (재)                               | 55 닥터 365                                                        |
| 2  | 50 다큐 공감 (재)                                                                        | 00 KBS 뉴스타임<br>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 05 내꺼야 폭력<br>30 꾸러기 식사교실                  | 00 2시, 뉴스브리핑                                                     |
| 3  | 50 숨터<br>55 튜닝생활체조                                                                  | 00 자동차부품상 위키2<br>30 TV 유치원      | 00 MBC 뉴스<br>10 독? 특! 키즈스쿨<br>55 응가 쇼나타 2 | 00 영재발굴단                                                         |
| 4  | 00 4시 뉴스집중                                                                          | 00 여유만만(재)                      | 25 MBC 일일특별기획<br><황금주머니>(재)               | 00 4시, 뉴스브리핑                                                     |
| 5  | 00 KBS 뉴스 5<br>30 전국을 달린다<br>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제보자들 (재)                     | 00 MBC 이브닝 뉴스                             | 00 SBS 오뉴스<br>50 KBC저녁 뉴스                                        |
| 6  | 00 6시 내고향<br>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 00 KBS 뉴스타임<br>20 2TV 생생정보      | 20 생방송 빛날                                 | 05 날씨와 생활<br>10 닥터365<br>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랬다                      |
| 7  | 00 KBS 뉴스7<br>35 시사현장 맥                                                             |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br>55 MBC 뉴스데스크      | 15 TV블로그 꿈지락<br>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
| 8  |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br>25 빛나라 은수                                                          | 30 글로벌 24<br>55 1대100           | 55 MBC 일일특별기획<br><황금주머니>                  | 00 SBS 8 뉴스<br>35 KBC 8 뉴스<br>55 본격연예 한밤                         |
| 9  | 00 KBS 뉴스9                                                                          |                                 | 30 리얼스토리 논                                |                                                                  |
| 10 | 00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 00 월화드라마<br><화랑>                | 00 월화드라마<br><불야성>                         | 00 월화드라마<br><피고인>                                                |
| 11 | 00 KBS 뉴스라인<br>40 명견만리 신년기획 2부작 (재)                                                 | 10 살림하는 남자들                     | 10 PD수첩                                   | 10 불타는 청춘                                                        |
| 12 | 30 강연 100℃ (재)                                                                      |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 05 MBC 뉴스24<br>15 MBC 100분 토론             | 30 나이트 라인                                                        |

| EBS 1                                                                                                                                                                                                                                                          |                                                                                                                                                                                                                                                        |                                                                                                                                                                                                                                                                      |                                                                                                                                                                                                                                                |
|----------------------------------------------------------------------------------------------------------------------------------------------------------------------------------------------------------------------------------------------------------------|--------------------------------------------------------------------------------------------------------------------------------------------------------------------------------------------------------------------------------------------------------|----------------------------------------------------------------------------------------------------------------------------------------------------------------------------------------------------------------------------------------------------------------------|------------------------------------------------------------------------------------------------------------------------------------------------------------------------------------------------------------------------------------------------|
| 05:00 EBSe 생활영어<br>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br><대평양 섬문화 기행<br>- 태초의 자연을 만나다.로타><br>06:00 한국기행(재)<br>06:20 세계테마기행(재)<br>07:00 레이디 비그<br>07:30 로보가 폴리<br>07:45 꼬마버스 타요<br>08:00 엉뚱망 유치원1~3<br>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br>09:00 방귀대장 뽕뽕이<br>09:15 출동! 슈퍼피스<br>09:30 이입! 스페이스 정글 |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br>10:30 한국기행(재)<br>10:50 최고의 요리비결<br><집합><br>11:20 세계테마기행(재)<br>12:00 EBS 정오 뉴스<br>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br>12:40 지식채널e<br>12:45 숨은 한국 찾기(재)<br>13:35 뷰티풀 코리아<br><기암절벽마다 전설이 깃든 산, 주왕산><br>13:40 즐겨온 수학 EBS MATH<br>13:50 그림을 그려요2 | 13:55 캐니멀<br>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br>14:55 포피와 친구들<br>15:05 피터레빗<br>15:20 아웅망영 귀여워(재)<br>15:35 요술 상자2<br>15:45 코코몽 3<br>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br>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br>16:45 엉뚱망 유치원1~3(재)<br>17:30 로보가 폴리(재)<br>17:45 꼬마버스 타요(재)<br>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br>19:00 소피 루비 | 19:30 EBS뉴스<br>19:50 극한직업<br>20:40 다큐 오늘<br><늑대는 맛, 식히는 맛, 가자미><br>20:50 세계테마기행<br><필리핀 보물섬, 비사야 제도<br>- 숨겨진 보물, 레티메 섬><br>21:30 한국기행<br><아날로그 감성여행<br>- 몽담하라 7080><br>21:50 EBS 다큐프라임<br>22:45 리얼극장-행복<br>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br>24:05 세상의 모든 범죄 |
|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                                                                                                                                                                                                                                                        |                                                                                                                                                                                                                                                                      |                                                                                                                                                                                                                                                |
| 子                                                                                                                                                                                                                                                              | 48년생 근본이 되는일부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연세적인 패인이 붙는다. 60년생 망설이지 말고 대반할 필요가 있다. 72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목전의 현실에만 집중하자. 84년생 적절한 방안을 분명히 찾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3, 99                                                                                                             | 午                                                                                                                                                                                                                                                                    | 42년생 크게 한숨을 쉬 일이 생길 것이다. 54년생 현장감 있는 실재적 요령이 절실한 때이다. 66년생 완곡하게 유도해 주는 것이 무탈하다. 78년생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생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0, 23                                                                                            |
| 丑                                                                                                                                                                                                                                                              | 49년생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61년생 수처란 이미 흘러간 물로 움직일 수 없는 법이니 미련을 버려야 한다. 73년생 선택하기보다 선택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85년생 주변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65, 36                                                                                                         | 未                                                                                                                                                                                                                                                                    | 43년생 재료가 좋아야 대작이 나오는 법이다. 55년생 자신의 판단을 중시하라. 67년생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79년생 다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물어 보고 가자. 91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게 하라. 행운의 숫자 : 24, 93                                                                                                 |
| 寅                                                                                                                                                                                                                                                              | 50년생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62년생 현혹된다면 순간적으로 오만한 소지가 있다. 74년생 이면에서 작용하는 요인은 따로 있느니라. 86년생 진행은 되지만 성과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5, 04                                                                                                                | 申                                                                                                                                                                                                                                                                    | 44년생 가파른 낭떠러지에 서있는 판세에 비유할 만하다. 56년생 실질적인 면을 우선해야겠다. 68년생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고 보낸 대로 돌아올 것이다. 80년생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매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9, 70                                                                                                      |
| 卯                                                                                                                                                                                                                                                              | 51년생 음달에도 햇볕을 날이 있을 것이니 희망을 잃지 마라. 63년생 과거의 잣대로 재려한다면 모순이다. 75년생 수용한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 87년생 모순점이 보이거든 그대로 방치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79, 96                                                                                                                   | 酉                                                                                                                                                                                                                                                                    | 45년생 단번에 판가를 날 가능성이 큰 형국이다. 57년생 현재는 하찮더라도 장래에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다. 69년생 다각적인 분석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81년생 형상 너머에 있는 바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31, 86                                                                                                 |
| 辰                                                                                                                                                                                                                                                              | 52년생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64년생 빠른 속도의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다. 76년생 공통적이어서 더불어 처리하게 된다. 88년생 잘 살펴보면 분명히 쓸모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97, 91                                                                                                                 | 戌                                                                                                                                                                                                                                                                    | 46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 58년생 눈앞의 이익 때문에 숨겨진 화를 간파할 수도 있으니 참으로 조심해야겠다. 70년생 원칙에 따라서 순리대로로 처리하라. 82년생 흘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4, 56                                                                                                      |
| 巳                                                                                                                                                                                                                                                              | 53년생 지금은 분명한 형식을 갖추어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65년생 소폭적이거나 발전적인 이동수가 보인다. 77년생 강력한 장해 요인 앞에서 곤혹스러워 하는 위상이다. 89년생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행운의 숫자 : 09, 28                                                                                                                 | 亥                                                                                                                                                                                                                                                                    | 47년생 고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9년생 건너야할 강에서 때때후어 나뭇가이 다가오는 격이다. 71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83년생 구상에 그친다면 무의미하니 실제적 적용을 하라. 행운의 숫자 : 32, 71                                                                                                       |
|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센터” ☎010-9790-8237                                                                                                                                                                                                                       |                                                                                                                                                                                                                                                        |                                                                                                                                                                                                                                                                      |                                                                                                                                                                                                                                                |